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환경·안전	친환경에너지인 풍력·태양광 발전에 적극 나서
문화·관광	'스포츠 관전 정보 앱'으로 스포츠 경기 및 행사 안내	도시교통	전기 자전거로 택배서비스 시행
사회·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 권장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발표 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도시계획·주택	외곽순환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공원 조성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중국 상하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020년 2월 발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배경

- 상하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춘절 연휴 연장, 2월 9일까지 기업체의 업무 개시 금지, 시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대해 2월 말까지 방학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감염방지 관련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 아울러 시는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임대료감면,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
- 나아가 시는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월 12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당부

주요 내용

- 첫째, 시로 들어오는 각종 진입로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
 - 공항, 기차역, 상하이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水路)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
 - 상하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
 -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관찰을 실시
 -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관련 정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함
 - 상하이에 주거지나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상하이로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
- 둘째, 관할지역의 방역책임을 명확하게 함
 - 각 구(区), 가도(街道), 진(镇)정부는 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
 - 주민위원회는 상하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관리 및 통제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인원확인 및 감염 의심환자 조사 등을 실시

- 셋째,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관리를 철저히 함
 - 주민·촌민 위원회, 주택단지 관리업체는 주택단지(혹은 촌)의 출입구를 엄격하게 제한 및 통제
 - 출입구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강화
 -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등록 및 체온측정을 실시
 -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
 -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
 - 택배나 음식배달 등은 무접촉 배달 방식을 취해야 함
 -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달원이 물품이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고객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 등을 수령
 - 관리업체가 없는 주택단지에서는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히 이행
- 넷째,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및 관찰을 실시하고, 외부 출입을 금지
 - 발열증세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진찰 및 검사를 실시
 - 격리관찰 등 방역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움
 - 위생건강부서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
 -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이 격리관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실시
- 다섯째, 건강정보 등록과 확인을 강화
 -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등록한 건강정보를 면밀하게 확인
 - 개인의 감염병력, 감염증 발생지역에서 여행한 이력,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및 관찰을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 국가 및 상하이市の 규정에 근거하여 상하이市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등록
- 여섯째, 업계 방역규범을 철저히 실시
 - 상하이를 방문하거나 상하이로 복귀한 사람 가운데 교육, 보육, 의료, 가사 관리, 간호 및 노동집약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관리조치를 실시

- 격리관찰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직장에서 격리가 가능하면 직장에서 격리하고, 주거지가 있으면 자택에서 격리
 -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각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집중격리시설에서 건강관찰을 실시. 다만, 이 경우에는 직장 혹은 개인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물류, 택배, 대중교통, 택시 등의 업계 종사자는 직장에서 격리를 주관
 - 자택이나 집중격리시설에서의 관찰기간은 상하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임
 - 직원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서는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함
- 일곱째,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강화
- 출퇴근 첨두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최소화
 - 역이나 정류장을 출입하는 인원을 분산하고 승차대기로 인한 인원의 밀집도를 낮추도록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집중되면 임시열차 등을 증설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승객의 밀집도를 낮춤
- 여덟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시내버스, 통근버스, 페리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중교통수단의 청소 및 소독, 통풍 및 환기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 지상 대중교통과 페리에서는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지하철은 운행 중 환기시스템을 작동하고, 역에서는 24시간 환기시스템을 가동
- 아홉째, 공공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시행
-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료위생기관, 상업시설,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함
 - 각 시설 담당자는 시민이 협조를 거부하면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함
 - 공공장소의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출입문의 손잡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매일 정기적으로 소독
- 열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
- 건축공사현장 입구에 건강관찰소를 설치해 건축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

- 건축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 및 건강상황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매일 보고하는 긴급 보고 시스템을 운영
 - 건축공사현장의 관리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
 - 정기적으로 주요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열한째, 러시아워를 피하도록 시차 통근제 권장
-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으로 시차 통근제를 실시하도록 권장
 - 탄력근무와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장려
 - 경찰 및 교통관리부서는 시민들의 자가운전을 통한 외출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

http://www.legaldaily.com.cn/government/content/2020-02/11/content_8114626.htm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424187.html?phlnohdjmglngdbi>

문 해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스포츠 관전 정보 앱’으로 스포츠 경기 및 행사 안내

일본 오사카시 / 문화·관광

일본 오사카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도시매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관전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포츠 관련 정보 제공 실증실험을 시행

배경

- 2019년 3월 수립된 ‘오사카시 스포츠 진흥계획’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도시매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스포츠 실시율’¹⁾ 65%를 목표로 설정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에 시는 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나 행사 일정을 스포츠 관전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리는 ‘오사카시 스포츠 캘린더’ 실증실험을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시가 주최·공동개최하는 스포츠 경기나 행사 등의 정보를 (주)스포카레에 제공하고, (주)스포카레는 스포츠 관전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오사카시 스포츠 캘린더’를 만들어 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나 행사 등을 안내
- 또한 시가 제휴협정을 체결한 5개 스포츠팀의 경기 정보도 안내
 - 개별 스포츠팀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현지 팀을 응원하는 계기를 만들
- 스포츠를 ‘보는 것’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시민생활과 스포츠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핵심

<https://corp.spocale.com/>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89691.html>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cmsfiles/contents/0000010/10382/gaiyo-.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 시민 스포츠 실시율은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성인 비율을 말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 권장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중국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지휘부는 교통이 혼잡한 첨두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통지를 2020년 2월 발표

배경

-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지휘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에 권장
 - 춘절 연휴 이후 기업의 업무 재개를 앞둔 2020년 2월 9일 교통이 혼잡한 첨두시간대를 피해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제 도입을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지문을 발표

주요 내용

- 상하이시 행정구역 내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상하이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이 급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업은 생산 및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전염병 발생지역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하이로 복귀하는 시기를 늦추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전염병 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직원들도 상하이로 복귀하는 것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빌딩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기업 직원들이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역별, 층(層)별, 업체별,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함
 - 각 사무실 독자적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사무공간의 환기조건을 개선하도록 함
- 각 기업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 통근제를 도입하도록 권장
 - 대형 도소매 기업은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단축
 - 일반 무역서비스 기업 및 외식업체는 개점 시간을 적절하게 늦춤

- 일부 생활서비스 기업은 오후부터 영업을 시작
- 과학연구, IT 등의 업종에는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직무별 근무시간대 분리, 출근시간 로테이션을 권장
-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풀 고정 파트너를 정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함
 - 여건이 되는 기업에서는 출퇴근 차량을 증설
 - 통근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노선은 일정한 승객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버스 제도를 운영
- 러시아워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편성
 -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을 자주 소독
 - 버스와 지하철 운행 중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지하철 내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동하지 않도록 함

향후 전망

- 상하이市 소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상하이에서는 두 차례 연장된 춘절 연휴가 끝나고 2월 10일부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했지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065857172834822&wfr=spider&for=pc>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발표

중국 다론펬市 / 사회·복지

중국 다론펬(大連)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지휘부는 감염병이 음식점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 자체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2020년 2월 발표

배경 및 목적

- 중국 다론펬(大連)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지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기간 동안 市 전체의 외식서비스 경영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를 2020년 2월 12일 발표
 - 이 조치는 감염병이 음식점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주요 내용

- 감염병 방역기간 동안 다론펬(大連)시의 모든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점 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음
 - 테이크아웃 서비스와 인터넷 및 전화 주문을 통한 배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음
- 음식을 담는 용기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배달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함
 - 배달원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음식점 경영자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밀봉하여 음식 배달 중에 생길 수 있는 전염병 발병 위험과 음식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함
- 각급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기관 및 기업에서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밀집해서 식사할 수 없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함
 - 식사 인원이 비교적 적고 인원을 분산시켜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밀집하여 식사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서는 식사시간을 연장하거나 식사시간대를 나누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부서별 등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식사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하는 방식 등을 활용
-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식사 시 사람 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직원들의 '셀프 배식'을 금지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식사하지 않도록 함
- 모든 종류의 식기는 전담인원이 철저히 소독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당 공간을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소독해야 함
- 식당과 탕비실은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기, 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등 공용시설을 수시로 소독해야 함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유의해야 함

정책 평가 및 전망

- 현재 다롄市 외에도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 산업이 당분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http://dl.cnr.cn/jrdl/20200212/t20200212_524972074.shtml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일본 오사카시 / 사회·복지

일본 오사카시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나니와 공원 일부를 보육원(어린이집) 용도로 점용허가하고 인가보육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배경

- 오사카시는 대기아동 등 보육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대기아동특별대책팀을 설치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 중
 - 그 결과 2019년 4월 기준 보육원 등 이용자 수는 전년도보다 1,533명 증가한 52,804명이 되었고, 대기아동 수는 37명 감소한 28명을 기록
 - 다만, 여전히 대기아동이 존재하고 지역의 보육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육원 정비, 지역형 보육사업 실시 등을 통해 대기아동 문제 해소에 힘씀
- 최근 시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나니와 공원(浪速公園)을 보육원(어린이집) 용도로 점용(占用)허가하고 인가보육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쉼터이자 재해 발생 시 피난장소로 활용되는 필요 불가결한 도시기반시설이므로, 보육원 설치에 따라 공원 기능이나 매력이 저하되지 않고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 때문에 나니와 공원 일부에 보육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원의 기능이나 매력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 마련을 응모 조건으로 함
 - 보육원이 개최하는 행사에 공원 이용자 참가, 재해 발생 시 지역 아동에게 나눠줄 기저귀나 분유 비축, 육아 상담 실시, 공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유 수유 공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보육원 설치·운영 조건의 주요 내용

- 보육원 개설기간을 명시하고, 정비상황에 따라 시와 협의해 조기 개설 가능
- 보육원 정원
 - 총 정원은 100명 이상을 원칙으로 법인이 직접 제안
 - 0~2세 정원은 적어도 40인 이상이 되어야 함

- 정원은 0세 아동을 3인 이상으로 하여 0세 아동 ≤ 1세 아동 ≤ 2세 아동 < 3세 아동 ≤ 4세 아동 ≤ 5세 아동 형태로 구성
- 2세와 3세 아동의 정원은 4인 이상 차가 나도록 설정
- 공원 사용은 도시공원법에 의거한 점용허가(행정처분) 형식으로 함
- 점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 운영개시일로부터 22년간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대기아동 현황 등을 반영해 5년씩 점용허가기간을 갱신
 - 보육원 운영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
 - 보육원 개설 준비기간과 원상복구 기간에는 사용료가 무료
- 市는 보육원 건물 건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은 별도의 요건 없이 응모할 수 있음
 - 그 밖의 법인은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갖출 것¹⁾, 법인의 업무집행 직원이나 이사 등이 사회적 신망을 갖출 것,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식·경험을 갖출 것, 부정이나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
- 보육원 운영 조건
 - 반드시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운영할 것
 -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을 포함해 1일 11시간 이상이 원칙
 - 구(區) 보건복지센터의 요청에 따라 장애아동 보육사업을 실시할 것
 -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관련 연수에 참가할 것
 -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를 징수할 때는 중요사항 설명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승낙을 얻을 것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484155.html>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470823.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 보육원의 연간사업비 12분의 1 이상에 상당한 자금을 보통예금 등으로 보유할 것

친환경에너지인 풍력·태양광 발전에 적극 나서

미국 시카고市 / 환경·안전

미국 시카고市는 친환경도시로 발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자원으로 태양열 및 풍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풍력 에너지 발전소 설립과 태양열 발전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배경

- 시카고市는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 미국 내 친환경도시를 롤 모델로 삼고, 배기가스 감소와 시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카고市가 위치한 일리노이州는 2003년부터 50곳 이상의 풍력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석탄 에너지 사용률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대체정책에 적극적
 - 市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 친환경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정 및 정책을 마련
 - 미국 풍력에너지연합(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AWEA)은 일리노이州가 미국의 50개 州 가운데 6번째로 많은 2,778개의 풍력 발전기(Wind Turbine)를 보유하고 있는 등 친환경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주요 내용

- 친환경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 삶에 있어 기본이 되는 에너지 사용 대체를 추진 중
 - 일리노이州의 풍력 발전 시설을 통해 2030년까지 시카고 시내를 포함한 720만 가구에 풍력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
 -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카풀(Car Pool) 이용 권장, 자동차세 및 시카고 시내 주차료 인상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화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과 같은 비(非)환경친화적 에너지가 대부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풍력 에너지 발전소 설립과 태양열 발전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벌금 부과나 제재 형식의 환경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방식부터 바꾸어 거부감 없는 도시환경정책을 추구

- 풍력 발전 및 태양열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대체 정책을 통해 市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과 같은 부가적인 성과도 얻는 중
-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시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 해결과 관련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
 - 교외 지역의 풍력 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로 및 학교 시설 개선
 - 나아가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 등 지역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립 시 해당 지역 실태조사 및 매년 조사서 공개
 - 또한 市 외곽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해당 지역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州의 외곽 지역 내 인구 증가 효과 예상
 - 향후 5년간 시민들의 기본생활에서 공공장소 에너지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과 외곽 지역의 반대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 내 중서부 지역의 대표 친환경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향후 계획

- 202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재생 자원에서 얻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주법(州法)으로 규정
 - 일반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2018~2019년 일리노이州 전체 전력 소비량 중 풍력 발전은 6.8%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목표 달성 추진
 -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지역 단체들과 논의한 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반대의견 최소화
 - 시카고市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미국 중서부 지역 내 모범도시로 자리 잡을 계획
 - 캘리포니아, 하와이州가 선도하고 있는 친환경도시 정책을 중서부 지역에 맞게 시행
 - 미국 내 대표 재생에너지 기업이 시카고市가 위치한 일리노이州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지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에 市는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
 -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일리노이州 내 저소득층부터 대규모 산업체 까지 친환경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그림 1] 일리노이주 풍력 발전소 전경

<https://topcropwindfarm.com/>

<https://www.dasolar.com/home-wind-power/illinois/chicago>

<https://www.illinoissolar.org/>

<https://www.vivintsolar.com/state/illinois/chicago-solar>

<https://www.illinoiswindmills.org/wind-turbines>

<https://windexchange.energy.gov/states/il>

<https://www.ecdol.org/green-energy-in-illinois.html>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전기 자전거로 택배서비스 시행

미국 뉴욕시 / 도시교통

미국 뉴욕시는 택배회사가 참여하는 화물 택배 전기 자전거 배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19년 12월 발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맨해튼 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배경

- 매일 200만 건의 택배 배달이 뉴욕시 5개 광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
 - 이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과 배달 지연 그리고 시내 곳곳에 배달을 위해 정차하는 차량의 공회전으로 차량 배출가스가 증가
 - 또한 보행자도로에서 운행하는 배달차량으로 사고 위험 증가
- 이에 뉴욕시는 전기 자전거로 택배서비스를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주요 내용

- 대형 택배회사들의 참여와 중소 택배회사의 참여 권장
 - 대형 택배회사들이 제공하는 100여 대의 택배용 자전거를 활용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택배회사의 관리하에 택배용 자전거의 속도, 주차, 자전거 도로 사용 여부, 자전거 크기 등을 도로교통국에 보고
 -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국은 택배용 자전거 속도 제한, 주차료, 자전거 크기에 대한 법령을 수정할 계획
- 도로교통국이 발표한 프로그램 지침
 - 택배 자전거의 크기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차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함
 - 연락처 및 인식표를 택배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 택배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km를 초과할 수 없음
 - 택배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야간에는 택배 자전거를 택배회사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 차량 배출가스 저감효과 및 소음공해 감소 기대
 - 배달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량 공회전으로 탄소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전기 자전거 택배 배달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효과 기대
-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뉴욕市 경찰과 연계
 - 2019년 한 해 뉴욕市에서 발생한 도로 위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트럭과 관련된 사고로 조사. 앞으로 뉴욕市 경찰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적발할 예정
- 프로그램 보완 및 연장 검토
 - 이 프로그램은 교통이 혼잡한 맨해튼 60번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
 -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보완 및 연장 시행을 검토할 예정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594-19/mayor-de-blasio-commercial-cargo-bike-program-reduce-delivery-congestion>

<https://ny.curbed.com/2019/12/4/20995080/new-york-traffic-cargo-bike-last-mile-delivery-amazon>

이 정 근 통신원, garuk300@gmail.com

외곽순환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공원 조성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함께 나뉘게 된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 위에 터널을 시공하고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원을 조성

배경

- 바르셀로나의 에스플루게스 데 요브레갓(Esplugues de llobregat)에 위치한 Can Clota와 Can Vidalet의 두 지역은 콜세롤라 산맥의 협곡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지형
 - 두 지역 사이의 협곡 일대는 1920년대에는 과수원과 작은 정원, 여름 별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주말 및 여름 휴가를 보내는 곳이었음
 - 1950년대부터 대규모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지 용도는 농업에서 산업 및 주거 용도로 바뀜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었고, 이 도로는 두 지역 사이의 협곡을 지나게 되어 두 지역 간의 단절이 불가피하게 됨

주요 내용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은 두 지역 간의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외곽순환도로 위에 터널을 건설하고 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
 -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연결성을 되살리고, 솔리타리타트 공원(Parc de Solitaritat)을 조성해 공공공간을 확보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Parque de La Solidaritat, 1998
 - 재개발 면적: 24,768.68㎡
 - 개발 주체: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공공공간서비스 부서
 - 재개발 용도: 공원, 도로
- 특징
 - 두 지역 사이의 협곡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연결성을 향상
 - 대규모 녹지 조성을 통해 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고립된 곳을 인공대지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통합

성과 및 시사점

- 두 지역의 단절로 인한 대중교통 연결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 동시에 대규모 공공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

<http://www.amb.cat/es/web/territori/espai-public/parcs/consulta-de-parcs/detall/-/equipament/parque-de-la-solidaritat/345068/11656>

<http://www.amb.cat/es/web/territori/actualitat/publicacions/detall/-/publicacio/parc-de-la-solidaritat/528176/11656>

https://docs.amb.cat/alfresco/api/-default-/public/alfresco/versions/1/nodes/bbb53a13-1275-44ca-b604-ab6e19b81a72/content/13_Solidaritat+0512.pdf?attachment=false&mimeType=application/pdf&sizeInBytes=532928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세계도시동향 제473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3월 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